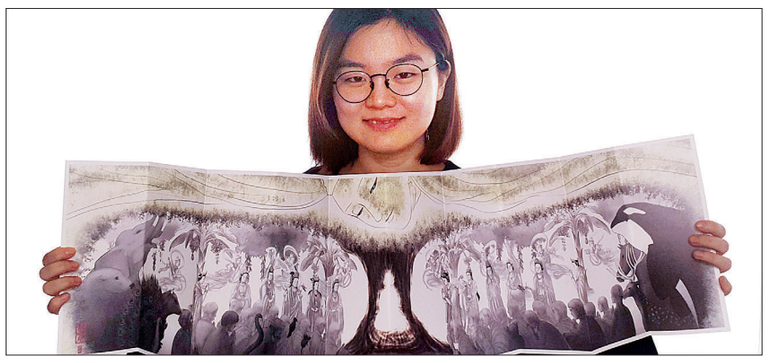
청년불자 사경집 '자비경' 출간 눈길

불교 디지털 아티스트 김계륜 작가
책 · 리플렛 형식으로 구성

1994년생, 매일 108배
선원 스님들이 도움 줘
"자비 · 포용 사회 형성 일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가 종교적 실천의 당의적 원리로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자비(慈悲)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매일 108배 기도를 하며 자비실천을 화두로 정진한 한 청년불자가 또래 청년들이 쉽게 사경에 동참할 수 있는 한글사경집을 펴내 눈길을 끈다.

도서출판 '피안가는 길'은 최근 한글 사경집 〈자비경 Metta Sutta〉을 출간했다. 〈자비경〉은 불교 초기경전 중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알려진 숫타니파타에 자경(慈經)이란 이름이 붙은 10개의 시구로 되어있다. 남방불교권에서 대중적으로 수지 독송하는 〈자비경〉이 국내에서 사경집으로 출간되기도 처음이다.

작가는 1994년생인 김계륜 씨〈사진〉로 매일 108배를 하며 〈자비경〉을 설한 부처님을 상상해 이번 책을 디자인했다. 김 작가는 봉암사, 선운사, 비로자나국제선원을 다니면서 스님들의 조언과 응원으로 자비경의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었다.

재가불자들에게 사경은 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눈으로 읽고 독송하며 마음으로 새기는 수행은 잡념이 사라진 자리에는 성찰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김 작가는 청년불자들이 쉽게 사경 수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사경집을 구성했다.

사경집은 두 가지 종류로 책 형과 리플렛 형으로 되어 있다. 특히 사경한 경전을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도록 리플릿 형에는 삽화가 담겨져 있다. 리플릿은 작은 병풍형태로 앞면은 보살들과 중생들이 부처님법을 듣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사경할 때 앞에 펼쳐두고 하면 좋고, 뒷면에는 책형태의 사경집에 10번을 사경한 후 정성스럽게 1번 사경하여 매일 자기만의 경전을 만들어 독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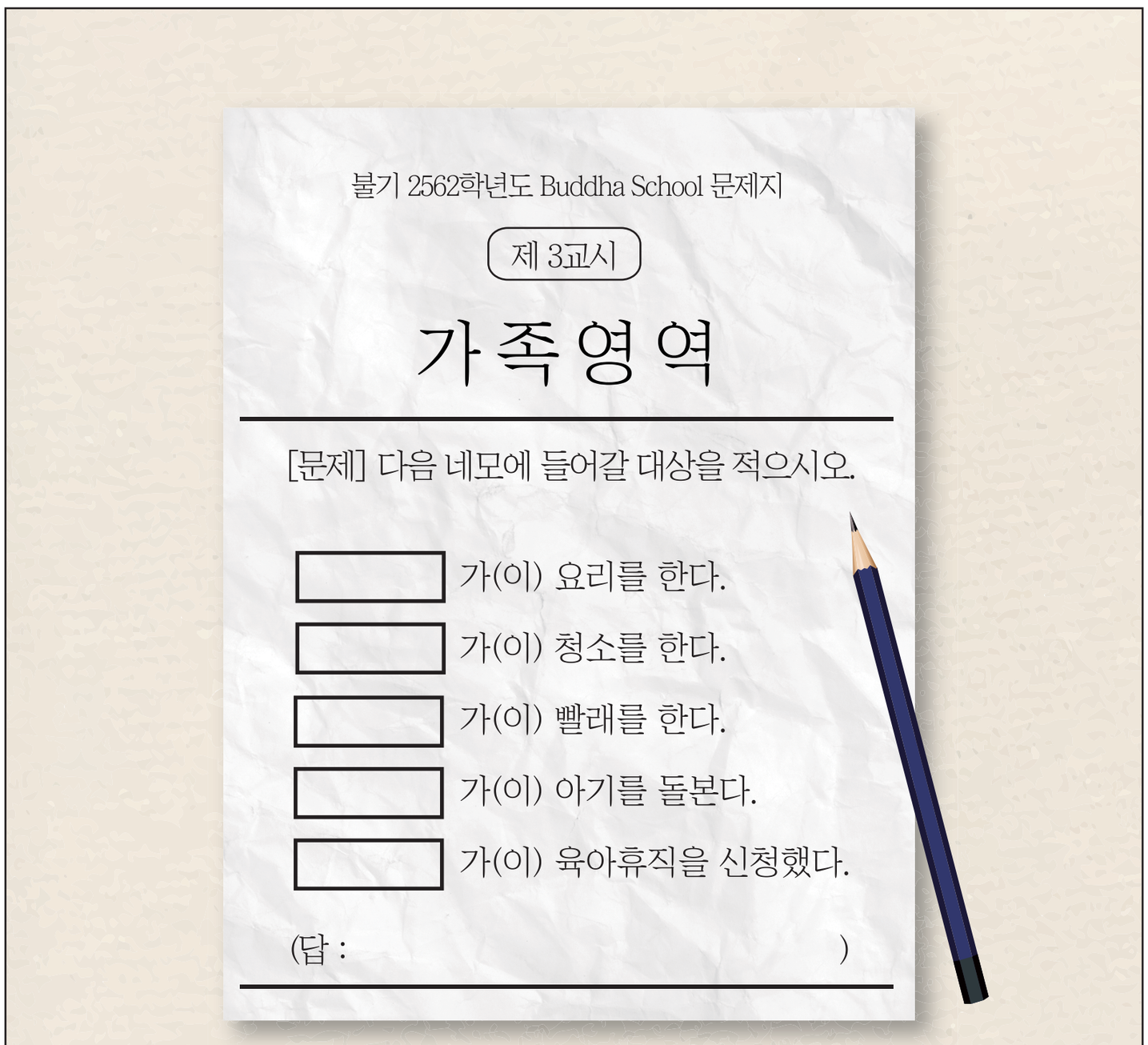
김 작가는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의지하게 됐고 어머니의 영향으로 차를 생활화 하면서 선다일여(禪茶一如)를 꿈꾸기도 했다. 현재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불교 일러스트, 동화 등을 제작해 청년작가로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원력을 갖고 있다.

김 작가는 사경집 발간을 두고 최근 사회적 화두 중 하나인 포용사회를 강조했다. 김 작가는 "특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화를 뱉어낸다. 자비심으로 포용하는 사회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라며 "미움, 성냄, 어리석음을 포용하고 나도 포용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작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원력은 6개월 동안 108배를 꾸준히 한 것"이라며 "매일 기도가 끝나갈 때면 눈을 감고 어두운 시야 속에서 확연하게 떠올린 한 부분의 완성된 그림을 그려나갔다. 또 스님들의 조언과 응원으로 마침내 자비경의 이미지를 완성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수행하면서 자비심을 좀 더 갖기를 바라며 이번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성냄에서 벗어나 자비심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졌으면 합니다."

이번 사경집 발간에 대해 비로자나국제선원 측은 "김 작가와 함께 청년수행 진작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신은 누구를 적으셨나요?"
이젠 대한민국도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집안일,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보건복지부

한마음선원 2018수계식 봉행

국내외 지원서 총 4614명 수계 · 연비 받아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1월 1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2018년 수계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계식에는 4237명이 연비를 받았으며, 377명이 새로 계를 받고 불자로의 삶을 다짐했다.

수계법회는 10시 30분 예불을 시작으로 거향찬, 청성, 청법삼배, 청사, 오계, 연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안양본원 김홍보살의 수계자 발원문 낭독과 강릉지원 함춘석 거사에게 대표수계첩 수여, 이사장 혜수 스님 말씀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수계식에서 김홍 보살은 수계자들을 대표해 "세상사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같은 신심을 다져가겠다"며 "이토록 소중한 공부 인연을 만난 감사함을 거름 삼아 진실한 실천행으로 하루하루를 밝고 푸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사장 혜수 스님은 수계자들을 대표해 강릉지원 함준석 거사에게 수계첩을 전달했다.

혜수 스님은 "오계를 해마다 받지만, 생활하고 있는 자체에 오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일상 생활에서 큰스님 가르침 대로 늘 맡겨놓고, 모든 생명 소중히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계를 지키고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연비 하고 있다.

스님은 이어 "수계첩을 늘 가까이 두고 일상 생활에서 내가 오계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큰스님 가르침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달라"며 "연비 자국을 보며 오계 잘 지키고 있나를 돌아보며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인재원, 동안거 〈백일법문〉 공부결사

1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12주 과정

성철 스님이 동안거 기간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설한 '백일법문'을 함께 공부하는 결사가 시작된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성철선사상연구원(이사장 원택)과 함께 1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7시 서울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1층 교육관에서 〈백일법문〉 공부결사를 실시한다.

이번 공부결사는 동안거를 맞아 재가불자들의 수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희승 불교인재원 이사와 서재영 불광연구원 박사가 강사로 〈백일법문〉 상권을 교재로 불교의 본질, 백일법문의 의의, 중도사상의 독창성 등에 대해 12주 동안 강의한다. 또 성철선사상연구원 이사장 원택 스님이 '성철스님 백일법문에 대하여'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 김성구 이화여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의 '불교의 근본 중도와 현대 과학' 특강도 진행된다.

참선 실습도 함께 진행돼 충주 석종사서 혜국 스님의 법문을 듣는 수련회도 열린다.

수강료는 15만원(인재원 회원 12만원)으로 인터넷으로도 지원된다. 1661-1108 노덕현 기자

"어르신에 사찰음식으로 차린 생일상을"

동행, 저소득 독거어르신 대상 '동행수라' 사업

불교계 세 기관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에게 '사찰음식 생일상'을 대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력했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이하 동행)은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서 서울노인복지센터 ·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동행수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참석한 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 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은 △사업기금 지원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장소 및 음식 지원 △대상자 추천을 각각 맡기로 했다.

자공 스님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끼니를 라면으로 대신하거나 사회적으로 단절돼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생일을 만들어드리고자 한다"며 "뜻 깊은 사업에 교계 기관이 한마음으로 흔쾌히 협력해 줘서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동행수라는 경제 · 심리적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교문화 및 정신을 나누고, 사회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을 주관하는 동행은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건강 식단을 제공하는 한편, 지원단 봉사자의 말벗 서비스 및 사찰 경내 산책하기, 귀가 서비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11월 27일을 시작으로 총 12회 진행된다. 동행수라는 화요일마다 발우공양서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되며, 매주 8명씩 총 96명의 어르신들이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불교계 공적사회기금 캠페인 '8만4천 결사' 운동을 통해 모인 기금이 사용된다. (02)737-9595 김지원 기자

"죽음 준비교육은 '삶' 준비교육"

희유 스님, 노인집단상담 '사는기쁨' 출판기념회서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희유)는 11월 21일 서울 마이크 임팩트 스퀘어 12층 라운지서 '죽음준비교육 노인집단상담프로그램 '사(死)는 기쁨'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계, 학계를 비롯해 서울지역 복지분야 실무자 등 각계 관계자가 참석해 죽음준비 집단상담을 통해 본 불교적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저자 및 책 소개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 소감 발표 △저자와의 대화(희유 스님, 최정훈 공저가) 등 순으로 진행됐다.

센터장 희유 스님은 "'사는 기쁨'은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지만, 노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며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순간, 곧 삶에 대한 고민과 성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죽음은 인간의 삶과 표리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삶을 끝맺는 방식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와 직결된다.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삶을 보다 의미있게 살게 하고 죽음을 한층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삶의 준비교육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2003년부터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다양한 경험적 성과들을 축적해왔다. 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죽음준비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사는 기쁨'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매뉴얼북 〈사는 기쁨〉은 10년간의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담은 책으로,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가 및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지원 기자